

한민족, 한국인은 누구인가

글_ 이종호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한민족, 즉 ‘우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기원설로 집약된다. 첫째는 북방기원설이다. 이 설은 20세기 전반 서구에서 불기 시작한 문화 단일기원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민족의 문화요소들 중 이른바 북방문화 요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에 기원을 둔다. 강원대학교의 주채혁 박사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북방이란 동시베리아나 만주지역을 가리키며 현재 중국의 서쪽, 즉 만리장성 연선(沿線)을 포함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목생활을 하던 민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중국 북쪽에서 왔다는 견해가 포함되는데, 이는 주로 문헌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던 학설이다.

북방기원설 · ‘한민족은 북방에서 온 순록 유목민’

북방기원설의 주된 내용은 한민족은 언어·체질·문화면에서 북방민족의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러한 특징은 알타이어족에서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알타이어족은 역사적으로 만무니 질그릇을 쓴 청동기 사람이다. 주채혁 박사는 시베리아 생태환경으로 보아 시원적인 유목은 순록유목이고 ‘조선’이나 ‘고려’ 또는 ‘구르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한 순록유목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이 순록유목에 기원이 있다는 것은 수렵이나 어로 또는 채집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던 단계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식량생산자들 중에서도 특히 타이가와 툰드라나 스텝 등의 고원 건조지대를 목축생산의 주무대로 삼는 순록유목생산자 출신계열들이 우리 민족의 고대 정복국기를 세우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채혁 박사는 조선과 고려가 순록, 맥(고구려)이 너구리, 부여가 부이르(수컷 수달), 몽골이 엘벡키-너구리, 발해가 늑대 또는 이리, 단(檀)과 타타르가 수달, 솔롱고스가 ‘무지개’가 아닌 족제비과에 속하는 솔롱고(黃鼠狼)와 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유홍준은 기원전 1천년부터 빗살무늬토기에서 민무늬토기로 불리는 무문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에 주목했다. 무문토기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편차를 보이는데 빗살무늬토기 시대에는 빗살무늬토기 한 가지만 대중을 이루었던 것에 비해, 민무늬토기 시대에는 민무늬토기 외에 붉은 간토기(홍도)와 구멍무늬토기(공열문토기), 검은 간토기(흑도), 가지무늬토기(채문토기) 등 다양했다.

민무늬토기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죽음의 장식으로 고인돌을 만들었고 청동기를 사용했다. 이 사람

한반도에서 가장 큰 북방식 장리 2호 고인돌(평양시 상원군), 고인돌만 해도 너비가 6m가 넘으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안악군 노암리 고인돌보다 70cm나 더 크다. 남방문화가 유입된 대표적인 증거로 고인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한국에서 역으로 남방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들이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통구스 계통의 예족과 맥족이라고 추정했다. 유흥준은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이들이 한반도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거의 매너리즘에 빠진 채 살아왔던 고아시아족 빗살무늬토기인들을 섬멸시키고 이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민족은 한 번도 남을 침범한 일이 없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던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한 고아시아족을 섬멸시키고 이 땅에 민무늬토기와 고인돌, 청동기를 갖고 들어온 위대한 통구스 예맥족이다”라고 쓰는 게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고고학적인 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고조선과 부여이다.

남북혼합설 ·· ‘북방 유목문화와 남방 농경문화의 결합’

둘째는 ‘남북혼합설’로 우리 나라 남쪽에서 보이는 남방 해양문화권의 문화요소들을 그 주된 증거로 삼고 있다. 이것은 고고학적 조사보다 인류학적 측면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한반도 도처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 솟대 등을 남방에서 전해진 문화 요소로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농사를 지을 때 사용한 어깨삽 등도 남방기원설의 큰 근거로 설명한다. 즉 우리 문화는 북방에서 전파해 온 문화 요소와 남

방에서 유래한 문화 요소들이 결합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 구릉지대에 만들어진 원형 움집과 장방형 움집, 석관묘와 고인돌(支石墓)이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석관묘를 만든 사람들은 유목민족 계통이고,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은 벼 농경민들이다. 고인돌의 분포 지역은 중국의 랴오닝성, 산둥성, 저장성 등 중국의 황해 연안에서, 한반도에서는 전남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제주도까지 분포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에 가까운 규슈(九州)지방, 남쪽으로는 대만, 인도차이나 전역, 인도네시아 전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고인돌은 남방으로부터 도입되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경작되는 벼농사도 남방 문화가 유입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벼농사의 고향은 열대 지방이라는 것이다. 김병모 박사는 한국은 벼농사의 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동기인들이 벼농사를 한 이유는 벼의 뛰어난 경제성 때문으로 추정했다.

김병모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문화전통이 다른 북방 계열과 남방 계열의 주민이 한국에 살게 되면서 사유세계의 혼선이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유목민들의 신화 체계는 천손신화이고 농경인들의 신화는 난생신화인데 이 두 가지의 신화 요소가 한국



유라시아 초원지대 북방유목민 추정 이동로, 한민족의 근간이 북방민족이라는 북방기원설은 한민족이 언어·체질·문화면에서 북방민족의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월간중앙』(역사탐험) 2003년 7월)

고대 국가 성립 과정에서 모두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조선과 부여는 천손신화, 고구려·신라·가야는 난생신화이다.

천손신화는 수직하강 구조이고 난생신화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구조다. 기마민족의 천손신화의 주인공들인 박혁거세나 김알지·김수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수직하강 구조이면서도 정작 알이나 동자로 태어나는 기술은 두 가지 신화의 요소가 혼합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 출신의 허황옥이 해로로 가락국에 도착하여 김수로의 왕비가 된다. 아유타국은 갠지스 강에 있던 인도 전국시대의 도시국가이고 현대의 이름은 아요디아(Ayodhia)라는 것도 남북혼합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27호로 지정된 파사석탑은 허황옥이 인도에서 올 때 갖고 왔다고 알려진 약간 붉은 빛의 반문이 있는 돌탑이다. 멀리 이국으로 시집간 딸이 도중에 풍랑을 만나 되돌아오자 아버지가 풍랑을 가라앉게 해준다는 신비의 석탑을 배에 실어주어 무사히 김해까지 오게 되었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허명철 박사는 석탑의 재료가 우리 나라에는 없는 인도의 아유타 지방에서만 나는 파사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탑을

분해하여 원형대로 석고를 복원하였더니 놀랍게도 그 모양이 역삼각형으로 아랫부분이 좁고 위로 갈수록 넓고 큰 돌로 쌓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형태의 탑은 우리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인도의 동굴사원인 아잔타 엘로아나식에서 볼 수 있는 축소형 스투파 즉, 불탑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허 박사는 형태, 크기, 문양, 사리보관소, 석질, 탑명 등을 고려하여 이 탑이 인도에서 만들어 가져온 축소형 불탑이라고 결론지었다. 허황후가 인도에서 불교를 직접 김해로 전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자료인 것은 물론 남방계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거주했다는 것도 증빙한다는 것이다. 물론 허황후를 중국, 또는 한반도 서남해의 해양세력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론적으로 남방계와 북방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혼합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 남북혼합설의 주안점이다.

본토기원설 ·· ‘한민족 문화는 자생적으로 생성, 발전’

셋째는 본토기원설, 즉 자생설이다. 한민족의 문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조들이 대대로 문화를 일궈 오면서 형성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즉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문화 단계를 거치면서 자체 발전해왔다는 견해로 최근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주로 북한학자들

이 주장하던 가설이다.

한반도에서 7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충북 단양의 금굴과 평양시 상원의 검은모루동굴에서 70만 년 전(북한은 새로운 측정 장치에 의한 측정법으로 재측정한 후 100만 년 전으로 소급하고 있음)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굴되었고 계속하여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적이 한반도와 만주 곳곳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와 만주의 각지에서 70만~100만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석기시대부터 비로소 현대인들의 선조가 정착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석기시대 주민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후손이므로 구석기시대의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단국대학교 윤내현 박사는 두개골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본토 기원설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에서 출토된 것과 주변 것의 평균관계편차는 중국 황허 유역 사람은 0.81,



김수로왕의 허 황후가 아유타국으로부터 갖고 왔다는 파사석탑, 석탑의 재료가 인도의 아유타에서 발견되는 파사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사진 허명철).

일본 쓰구모 사람은 2.51, 연바이칼 사람은 1.65, 자바이칼 사람은 0.79인데 평균관계편차가 0.4보다 클 때는 통계학적으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한반도와 만주에서 독자적 특성을 지니고 형성된 민족이라는 것이다.

본토기원설은 북방이나 남방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이나 전파된 문화가 있었다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민족과 문화의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다는 견해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문화와 같거나 비슷한 문화 요소들이 외부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외부 지역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몽골 문화 가운데 우리 것과 유사한 것이 많으며 외모나 체격 등도 한민족으로 혼동할 정도로 많이 닮았다. 이를 두고 우리 조상들이 몽골 지역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이라고 통설적으로 설명하는데 윤내현 박사는 이를 역으로 설명한다.

몽골 지역은 역사시대 이래로 흉노가 거주했는데 이들은 중국과의 치열한 패권 장악을 위해 싸우다가 중심부에서 세력을 떨친 보르치긴족으로 칭기즈칸을 배출한 종족이다. 현재 몽골의 주력 주민들도 보르치긴족이다.

그런데 보르치긴족은 몽골로 이주해 가기 전 북만주 어르구나 하 유역에 거주했던 종족으로 고대 북만주 지역은 고조선의 영토였으며 고조선이 붕괴된 후에 동부여 영토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 몽골에 거주하는 주류 종족인 보르치긴족은 한민족의 한 갈래이거나 우리 조상들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한민족에서 분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토기원설은 고인돌과 비농사가 남방에서 들어왔다는 주장에도 모순점을 지적한다. 남방에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고인돌의 연대를 너무 낮게 추정하고 다른 나라의 고인돌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비농사도 매우 늦게 시작된 것으로 인식했는데 구석기시대의 야생범씨와 신석기시대의 재배범씨가 출토되었고 고조선시대에 이미 비농사가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볼 때 설사 고인돌과 비농사가 남방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우리 민족이나 문화의 주류가 남방에서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다. ㉮